'가람 이병기 전집' 완간… 대장정 결실

전북대, 11년 만에 총 30권 간행 사업 마무리… 완간 기념식 · 학술대회 개최

'가람 이병기 전집'이 11년 만에 완간됐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2일 인터내셔널센터 동행홀 7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4년 개교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한 '가람 이병기 전집' 총 30권의 간행 사업이 최근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이는 장장 11년 간 이어진 대장정이 마침내 완간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대학 및 간행위원회 관계자와 서거석 교육감, 정헌율 익산시장, 그리고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람 이병기 전집' 완간을 축하했다. 또한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 가람 선생의 업적과 정신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는 축사를 남겼다.

전북대학교는 12일 인터내셔널센터 동행홀 7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4년 개교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한 '가람 이병기 전집' 총 30권의 간행 사업이 최근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근현대 최고 국학자 겸 시조 시인이자 전북대 교수를 지낸 가람 이병기 선생은 윤동주와 함께 유일하게 변절하지 않은 항일 문학가다. 이에 민족의 사표인 가람 이병기 선생의 업적을 총망라해 이룬 11년 만의 전집 발간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사업은 2014년 전북대가 주최하고, 가람전집간행위원회(위원장 김익두)가 주관해 가람 문학을 전공한 이경애 박사와 호원대 유화수 교수, 강원대 이민희 교수, 서울대 황재문 교수 등이 함께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김익두 교수의 퇴임에 따라 전북대 한창훈 교수(사범대학)가 공동으로 간행위원장을 맡았다.

사업비는 전북대가 1억9,5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가 4,500만 원, 전주시가 8,000만 원, 익산시가 7,500만 원을 지원해 총 3억 9,500만 원 규모로 추진됐다. 이는 전북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체가 뜻을 모아 이뤄낸 성과로, 지역 역사상 가장 큰 문학 및 국학 분야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전집 간행 작업은 문학 부문 10권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진행됐다. 특히 49권 분량의 '가람일기' 중 한문 행초서로 기록된 1~3권의 탈초·번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며, 신문·잡지에 실린 가람 선생의 글 속 오탈자와 판독 불명 글자 문제로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간행·편집위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작업을 이어가 2021년 12월, 총 30권 중 10권을 간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사업비가 고갈되면서 이후 20권의 간행이 난관에 부딪혔다. 당초 15권 분량으로 예상했던 작업이 진행 과정에서 30권으로 늘어나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2022년 전주시가 추가로 5,000만 원을 지원해 15권을 간행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2024년 전북대 양오봉 총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등과의 협의를 통해 1억 1,500만 원의 지원을 이끌어내 마침내 전집 16~30권이 간행됐다.

이 전집은 가람 선생의 문학(시/시조·수필·일기 등) 분야 10권과 국문학 저스들을 중심으로, 국어학, 구비문학·민속학, 서지학, 교육학, 역사학 등 학술논문·평론, 친필·사진 및 기타 자료, 색인 등이 포함되는 20권으로 구성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면서 "가람 이병기 전집 완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족의 얼과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 기쁘다"며 "이번 전집이 많은 분들께 읽혀 가람 선생의 업적과 사상이 계승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전집 완간은 전북대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한국 문학과 국학 연구의 중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적·학술적 유산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학계의 가장 큰 어른이신 가람 이병기 선생의 전집 완간은 총장 재임 기간중 가장 자존감 높은 행사"로 "이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한문화 발상지' 역사 정체성 바로 세운다

익산시, 역사문화도시 기반 마련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익산시가 '한(韓)문화 발상지'라는 역사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배석희 익산시 경제관광국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조선 준왕이 남쪽으로 내려와 뿌리를 내린 익산은 마한과 백제로 이어지는 한문화 발상지"라며 "시민 역사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를 익산의 미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제왕운기'와 '고려사' 등 문헌에서는 고조선 준왕의 남천지를 익산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고고학적 유물로도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다. 여기서 비롯된 익산의 역사 정통성은 마한문화의 중심을 거쳐 백제왕도, 후백제 본향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 국호 '한'이 탄생하게 된 것도 익산 마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에 시는 한문화 발상지라는 시민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마한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강화 △역사 정체성 확립 △위상과 자긍심 고취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는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지난해 시는 신청사 개청에 맞춰 시민의 날을 고조선 건국일인 개천절 10월 3일로 변경하고,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GREAT) 익산' 도시브랜드(BI)를 선포했다. 새로운 익산시대 출범을 기념하며, 1969년 시작된 마한문화대전을 부활시키기도 했다.

올해는 제56회 마한문화대전을 영등시민공원에서 개최한다. 청동기~마한시대 유적을 보존한 영등시민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다. 이 유적들은 1995~1996년 영등동 택지개발 당시 발견된 청동기시대 집 자리와 마한시대 분묘 등이다.

황등호 역사문화공원 조감도

또한 시는 마한 문화유산을 정비하는 사업에도 매진한다. 시는 현재 유적이 남아있는 영등동 유적을 비롯해, 율촌리 고분군과 황등제 등에 대한 순차적 보존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에서도 농사를 위해 축조된 저수지 '황등제'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황등제는 2021년 일부 발굴 조사 결과 벽골제(AD 330)보다 600~700년 앞서 축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황등제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 제방인 셈이다.

시는 올해부터 황등제에 대한 연차적 발굴조사를 통해 마한문화의 연관성을 밝혀내고 복원 정비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남아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익산 황등호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제방 인근에 황등지구 배수 개선 사업과 연계 유수지, 산책로 등을 갖춘 수변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18일에는 '고도 한눈애(愛) 익산 세계유산센터'에서 미륵사지와 일본 아스카데라 사리장엄구를 비교하는 학술회의가 열린다. 또 백제의 익산천도를 증명하는 아직까지 유일한 기록인 '관세음응험기' 한글 번역본 발간을 통해 백제왕도 익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7월에는 백제왕궁(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의 장도 마련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부사모 창립전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이 공간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기획전시 '2025 부사모 창립전, 새로운 시작'을 마련했다.

전당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운영되는 이번 기획전시는 전시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전통의 맥을 잇는 부사모와 연계해 진행된다.

부사모(부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방화선 선자장의 제자들이 모여 2018년 설립된 나린선(하늘이 내린 부채)을 이어받은 단체로, 부채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류 및 활동의 폭을 넓히고자 올해 부사모라는 명칭으로 재창립됐다.

전시에는 방화선 선자장을 비롯한 19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단선 △온선 △반구선 △화폭선 △태극선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단선 부채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도영 원장은 "전주에는 예부터 부채를 제작하고 관리하던 선자청(扇子廳)이 전라감영 내 위치해 임금에게 진상하던 부채를 만들었다"며 "전시를 통해 부채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부사모의 작품을 관람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삼천생활문화센터, 비문해 성인 한글교실 참여자 모집

삼천생활문화센터(센터장 백정신)는 전주시평생학습관이 주최하고 삼천생활문화센터가 시행하는 2025 성인문해교실 '글꽃 피는 봄날' 프로그램, 무료 한글 교실을 연다.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접하지 못한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초등·중등 과정을 단계적으로 교육하여 한글을 자유롭게 쓰고 운용하는 능력을 키우며 더 나아가 어르신들의 삶과 생활 이야기를 글로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2025 성인문해교실 '글꽃 피는 봄날'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41회차로 이루어지며 장소는 삼천생활문화센터 '도란도란' 교실에서 진행한다.

수강료는 교재를 포함하여 전액 무료이며, 초등부터~중등 수준까지 단계별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한국어 강사가 지도하며, 한글 운용 능력은 물론이고 동시 읽기, 글쓰기도 지도한다.

'글꽃 피는 봄날'의 신청 방법은 전화 접수 또는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